국힘 비대위원 김용태 라디오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만찬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방탄)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14일 말했다.4·10 총선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인 김 위원은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지도부 해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여사라든지 권력에 가까운 분들에게까지도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 아니겠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우려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런 걱정이 먼저 있지 않도록 검찰도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또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의 간부 라인이 인사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해 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더 공정한 수사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실제 (수사를) 그렇게 해야된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